

간간해진 외부감사에 광주·전남 상장사 비상

아시아나항공·금호산업 재검사 한정→적정 공시
지역 28곳 중 2곳 문제…기업 신뢰도 하락 우려

회계법인의 외부감사가 간간해지면서 상장 기업들에 비상이 걸렸다. 아시아나항공 등 대기업조차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아 공포감이 커지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28개 상장기업 중에도 2곳이 외부감사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나 앞으로 어떻게 될지 주목된다.

26일 금융투자업계와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에 따르면 12월 결산 유가증권시장, 코스닥 상장 법인 중 이달 22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업체 중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기업은 22곳으로 집계됐다. 유가증권(코스피)시장에서는 건설업체 신한이 '의견거절'을 받았고, 아시아나항

공·금호산업·풀무원·이마트 등은 '한정' 의견을 받았다. 다만, 아시아나항공과 금호산업은 26일 재검사를 통해 '한정'에서 '적정'으로 정정 공시됐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지투하이소닉·에프티이앤이·라이트론·크로바하이텍 등 17곳이 의견거절을, 셀바스헬스케어는 한정 의견을 받았다.

특히 아직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도 50여 곳에 달해 향후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수는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광주·전남지역 상장기업 가운데 세화아이엠씨는 지난 21일까지 감사보고서를 공시해야 했지만, 감사절차가 늦어져

감사보고서를 아직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은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네 가지로 나뉜다. 적정 이외에는 모두 '비적정'으로 분류된다.

올해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상장사가 크게 늘어난 이유는 외부감사법 개정안 시행 때문이다.

개정법은 감사인의 책임을 강화해 회계 기준 위반이나 오류가 드러나면 징계로 이어지게 된다. 특히 2020년부터 6년간 감사인을 자유 선임할 수 있지만, 그 뒤 3년 동안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선임해야하는 탓에 'एं터리 감사' 후폭풍을 피하기 위해 간간해졌다는 분석이다.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기업의 문제는

신뢰도 하락이다. 주식거래가 재개되더라도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았다는 이유로 투자자들의 투매가 이뤄질 공산이 크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투자자들의 외면은 기업의 기초체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이는 국내 증시 불안으로 확산할 수도 있다.

반면 감사의견 비적정 사례 증가가 투자자들에게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투명성이 확보된다는 점에서다.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 관계자는 "금융위원회 상장 규정 개정으로 기업들이 올해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더라도 당장 상장폐지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내년도에 비적정 감사 의견을 또 받으면 상장 폐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148.80 (+3.94) ▼ 금리(국고채 3년) 1.76 (-0.01)
▲ 코스닥 736.81 (+9.60) ▼ 환율(USD) 1133.40 (-0.80)



광주은행 “펀드 가입하면 영화관람권 드려요”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오는 5월 31일까지 펀드 가입 이벤트 '#지금 #펀드 #재테크 #시작'을 진행한다. 최근 미증후군 발생이 일파를 몰고, 미국 연준이 금리인상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주식시장도 이를 반영해 회복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광주은행은 투자적기 판단하고 고객의 자산형성을 돕고 투자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펀드 가입 이벤트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이벤트는 광주은행 창구 또는 인터넷·스마트뱅킹을 이용해 이벤트 해당 펀드를 1000만원 이상 가입하는 개인 고

객을 대상으로 선착순 200명에게 롯데시네마 영화관람권 2매를 지급한다.

영화관람권은 이벤트 기간 내에 한 달 단위로 핸드폰 문자 전송될 예정이며, 사은품 소진시 이벤트는 조기종료 된다.

광주은행 장진섭 WM사업부장은 “고객님들의 자산을 믿고 맡길 수 있는 평생 동반자와 같은 지역 대표은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벤트의 자세한 내용은 광주은행 홈페이지(www.kjbank.com) 또는 고객센터(1588-3388, 1600-4000)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해외진출 계획’

창업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해외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6개국 액셀러레이터와 연계하는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에 참가할 창업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각 국가의 현지 액셀러레이터가 직접 유망 창업자를 선발해 4~6주 이내의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선발 국가는 창업기업의 진출 수요가 높은 미국과 중국을 비롯해 영국, 프랑스, 싱가포르, 베트남 등 6개국이다. 액셀러레이터는 각국 시장정보를 제공하고 현지 사정에 맞게 아이템을 발전시키고 유망 파트너사를 발굴한다.

지원 대상은 60개사 안팎의 (예비)창업기업이다. 기업 선정을 위한 모든 평가는 해외 액셀러레이터가 직접 진행하고, 중기부는 최종 선발 기업에 국내에서 온·오프라인 사전교육을 한 뒤 현지 액셀러레이팅 참가비와 현지 마케팅 비용으로 2000만원을 지원한다.

모집 기간은 27일부터 오는 4월 16일까지로,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전남테크노파크, 인도 우르자그룹 수출 협약 (재)전남테크노파크(원장 유동국)는 인도 비두트 우르자그룹(VIDYUT UTJA)의 모한 보틀레 회장을 초청해 26일 전남테크노파크 2층 전용회의실에서 전남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전남지역 신재생에너지, 식품, 농업융제품 관련 기업들의 해외수출 판로 등을 지원한다.

광주조달청, 물품·시설공사 등 을 2조5686억 집행

광주조달청이 올해 2조5686억원의 조달 사업을 집행한다. 전년 목표액보다 5.4% 늘어난 규모다.

광주지방조달청은 26일 지난해 조달사업 성과와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2조4951억 원 규모의 조달사업을 집행해 목표인 2조4368억 원을 102.4% 초과 달성했다.

올해는 전년도 목표액 대비 5.4% 늘어난 2조5686억 원의 조달사업 목표를 설정했다. 분야별로 물품·서비스 2조1386억 원, 시설공사 4300억 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김지숙 광주조달청장은 “지역 창업·벤처기업 제품의 공공 조달시장 진입과 판로 확대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지역 여행상품과 체험서비스, 전통문화상품 등 서비스

상품의 다수공급자계약(MAS) 체결 확대 및 신규품목 발굴에도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 조달청장은 “우수조달물품 지정 및 판로 지원,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G-PASS) 선정 지원 등 공공조달시장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공정 하도급거래 문화 개선과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조달청이 구축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활성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광양 세풍~중군 우회도로 내일 개통

3239억 들여 총 연장 9.28km

순천에서 광양 가는 길이 더 안전해지고 빨라진다. 광양시 광양을 세풍리와 성황동을 잇는 국도 2호선 우회도로(세풍~중군) 건설 공사가 마무리돼 28일 오후 4시부터 개통되기 때문이다. <위치도> 2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따르면 이 공사는 2006년부터 6월 착공, 3239억원을 들여 총 연장 9.28km 구간에 4차로를 신설했다.

시내 구간을 우회하는 신설 노선으로, 터널 4개소와 교량 13개소, 입체 교차로 3개소 등이 설치됐다.

특히, 광양 서천을 횡단하는 세풍대교는 국내 최초 곡선형 3주탑 사장교로 건설됐다. 주탑부에 경관조명을 설치해 광양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로 개통으로 광양시내를 통과하지 않고 광양과 순천을 오갈 수 있어 이용자들은 삼삼 체제를 피해 안전하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익산지방국토관



리청은 전망하고 있다.

또 광양제철소 접근성이 크게 개선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설도로를 이용할 경우 기존 국도 2호선을 이용할 때보다 10분 이상(25분→15분)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김철용 익산국토청장은 “이 구간과 올해 말 개통 예정인 ‘중군~진정’ 우회도로가 완공되면 여수·순천·광양·하동권 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대일항쟁기 강제 노무동원 피해자(유족) 소송신청인 모집

일제강점기 국외로 강제동원 된 노무동원 피해자만 1,045,000명!

지난해 대법원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일본기업에 배상 책임을 내렸지만, 99%가 넘는 대부분의 피해자와 유족들은 소송에 참여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3·1혁명 100주년을 맞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광주전남지부’와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일본 기업으로 동원된 광주전남 국외 노무동원 피해자들을 규합해 현존하는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공익소송을 추진합니다. (개인부담 없음)

광주전남 일제 강제 노무동원 피해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 “탄광 목욕탕은 셋만 가면 목욕은 하나마나야. 시켜뭇거든. 서로 먼저 갈려고 난리야. 목욕한 뒤에 보면 나중에 눈이나 코에서도 탄가루가 검게 나와. 지긋지긋했지.” (홋카이도 탄광 동원, 완도읍 김계순)

■ “어찌나 두들겨 맞았는지 지금 생각해도 살이 떨려. 좋다는 약이란 약은 다 먹어봤지. 보다 못한 동네 어르신이 매 맞은 데는 뽕물이 잘 듣는다고 하더라고. 죽기보다 낫다는 생각에 소주병으로 두 병을 마셔 봤지...” (나가사키 가와나미조선소 동원, 광주광역시 정영섭)

북해도 탄광에 동원된 한 징용 피해자가 가족에 보낸 편지.



일본 규슈 지쿠호 탄광에 동원돼 혹사당하다 사망한 한국인 노동자의 몸에 서 나온 가족사진.

신청 기간 · 접수처

2019. 3. 25(월)~4. 5(금) 2주간
광주시청 1층 민원실 접수창구

문의 062-365-0815
010-8613-3041(이국언)

신청 대상

- ‘대일항쟁기강제동원지원위원회’로부터 피해자로 확정된 노무동원 피해자(유족 포함)
- 현존(現存)하는 일본 전범기업 동원 피해자
- 2019. 3 현재 광주전남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
- 일본기업을 상대로 별도의 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 원고는 제외
- 군인, 군속, 학도병 동원 피해자는 제외

제출서류

서 류	문 의
<행정안전부-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지원과>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심의 결정통지서(정본) 1통 •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등 지급결정서(정본) 1통	전화. 02-2195-2300, 2301 팩스. 02-2195-2319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기타 피해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문서, 사진 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광주전남지부 ·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